

출장보고서

I. 출장 개요

1. 출장건명: 통일정책연구협의회 공동연구 한일워크숍 참가를 위한 일본 출장
2. 출장목적: 통일정책연구협의회 공동연구 한일워크숍 참가
3. 출장지역: 일본 오사카 일원
4. 출장기간: 2009. 10. 20 ~ 23(4일간)
5. 출 장 자:

부서명(기관명)	직 급	성 명
글로벌협력연구본부	연구위원	김영훈

6. 출장일정 및 방문기관

일자 (요일)	출발	도착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면담자
10. 20 (화)	인천	일본 오사카	오사카 민단본부/ RENK (Rescue North Korea)	○ 서울 출발 - 오사카 도착 ○ 한·일워크숍 -주제: “최근 북한의 분야별 실태” -발제: 이영화 교수 (간사이 대학) -토론: 통연협 참석자	RENK 관계자, 이영화 교수 (간사이 대학)
10. 21 (수)		일본 오사카	오사카 민단본부	○ 오사카 민단 간부 및 관계자 대상 한국의 대북정책 간담회 -발제: 배정호 박사 (통일연구원)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 관계 현황” -발제: 손기웅 박사 (통일연구원) “녹색성장과 남북한 교류협력”	오사카 민단 간부, 관계자
10. 22 (목)		일본 오사카		○ 오사카 조총련 관계자 방문 -주제: “최근 북한의 분야별 실태” -발제: 조총련 국제부장 외 -토론: 통연협 참석자	오사카 조총련간부
10. 23 (금)	일본 오사카	인천		○오사카 출발 - 인천 도착	

II. 주요 출장 결과

1. 1차 한·일워크숍

- 일 시: 2009. 10. 20, 16:00~18:00
- 장 소: 오사카 민단본부 소회의실
- 참 석 자: 이영화 교수(간사이대학, RENK: Rescue North Korea 대표) 외

◦ 이영화 교수는 조총련 추천으로 북한 사회과학원에 유학을 갔으나, 북의 실상을 체험한 후 전향했다. 이후 북의 인권문제, 체제문제, 후계자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활동과 강연을 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 연락망을 구성하여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

Q 북한 유학 경위를 포함한 본인 소개?

- 일본 태생, 조총련학생회장을 지냈다.
- 북한 국적 부모님이 선택한 것이다.
- 대학생 때 한국 민주화 운동에 관심을 갖고 여기서 참여했다.
- 그런데 북한 민주화에 대해서는 그 동안 무심했다.
- 관서대학 경제학과에서 개도국 개발 강의 중 유학기회 생겼다. 북한 나의 조국, 가난한 나라에 대한 관심, 친척(할머니)도 있다.
- 조총련 아웃사이더였기에 나의 북한 유학에 대해 북한과 조총련에서 수용여부 고민한 것으로 안다.
- 일본 자민당, 사회당 등 3당 공동으로 북한 방문 후 이루어졌다. 일본에서 교수하는 조총련 사람이었기에 홍보 효과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 소련이 붕괴되는 1991년 북한 사회과학원 유학을 경험했다.
- 북한 사회과학원 초청으로 1991년 4~12월까지 유학했다. 1년 계획이었으나 소련 붕괴와 실망감 탓에 빨리 귀국했다.
- 당시 북한의 실상을 보고 충격을 많이 받았다.
- 소련 지원 없으면 북한은 오래 못 간다고 생각했다. 북한이 살아 남을까가 아니다. 언제 붕괴될까 하는 문제였다.
- 1991년 8월 쯤에 북한 사회가 급변했다. 자동차가 갑자기 못 다니고 얼굴 표정이 매우 어두워졌다.
- 사회과학원에는 2번 밖에 못 갔다. 갈 때, 올 때 인사 할때만. 사회과학원 교수들이 호텔에 있는 나에게 와서 강의를 해 주었다.
- 사회과학원 교수들과 강의 후 공원에서 같이 산책을 했는데, 이 때 진실

을 따로 말했다.

- 비공식 강의 때 북한의 고통, 문제점을 솔직히 말해주었는데 감명을 받았다.
- 떠날 때 북한에서 배운 내용을 일본에 가서 사회과학원 교수 입장이 아니라 북한 주민을 위해 많이 일을 해달라고 했다. 자기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라고 했다.
- 그래서 무서웠다. 일본 조총련도 여기 세력이 대단하다.
- 1993년에 인권 문제부터 시작했다. 협박받고, 무서웠다.
- 북한 사회과학원 교수들의 당시 제언이 지금까지 활동하는데 힘의 근원이 된다.
- 북한 유학 중 북한의 좋은 점은 하나도 없었다.

Q 북한의 식량사정은?

- 식량사정은 그전부터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다. 당시 북한 농업전문가 만났는데, 과거 3년간 농업(생산)이 15%씩 감소해왔다. 그런데 소련 붕괴 되면 20% 이상 감소할 것이고 대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정확히 예측했다.
- 대기근 예측했는데, 막지 못했고, 막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는 인명을 중시하지 않은 결과이다.
- 평양은 좀 나았다. 그러나 지방은 매우 심각했다.
- 95년부터 대기근, 평양 외 전국에서 나타났다. 학교 못 다니는 현상도 전국적으로 나타났다.
-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극적인 반전은 없다.

Q 북한주민의 생활사정은?

- 한 가족이 학생 2명 보내려면 연간 수입이 30만원~50만원 정도 되어야 한다. 이 정도 수입이 가능한 집은 지방에서는 1/3밖에 안 된다.
- 150일 전투 후에 100일 전투 다시 하는 문제는 6월에 이미 결정된 일이다. 어렵기에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간다.
- 한 달에 30만원, 50만원 수입 있는 사람은 대부분 장사꾼인데, 150일 전투 후 대부분은 수입이 10만원으로 떨어졌다.
- 이런 상황에서 학생을 학교로 어떻게 보내는가?
- 작년에 학교 보내던 아이들도 올해는 더욱 나빠진 경제사정으로 못 보낸다.

- 학교 수업료는 없지만, 원칙은 없지만 부수 경비 많이 든다. 교재비, 책상, 의자 모두 부모가 준비해야 한다.

Q 북한의 교육실태와 청소년문제는?

- 90년대 후반 대기근 발생, 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된다.
- 당시 초등학교 다니던 학생 10년 이상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 30%, 최대 50%가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
- 교육을 못 받아 좋은 점도 있다. 쓸데없는 사상교육을 안 받았다.
- 탈북자 면담결과 학교 안다니던 사람은 산수, 글쓰기 못한다. 큰일이다. 통일되면 경제활동 주도세력이 되어야 하는데 뭘 할 수 있을까?

Q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생각은?

- 정상적인 교육, 교육 위해 인도지원 필요하다.
- 현재 교과서, 부교재 등 교육자료 우선 지원해야 한다.
- 통일된 후 이들이 노동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Q 북한 체제가 유지되는 이유는?

- 북한은 외부 지식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간다. 신기하다.
- 그러나 현재 체제 유지되지만 내면을 보면 공업, 농업 등 산업 모두 무너졌다. 향후 5년 갈 수 있을 지 의문이다.
- 북한에는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 북한 주민들의 탈북사태, 북한 보위부도 눈감아주고 있다. 심지어 자기 자식도 보낸다.
- 외부 지원이 그동안 많았다. 최근에 많이 늘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지원은 인민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보위부에 대한 지원이다.

Q 북한의 변화, 붕괴 가능성은?

- 5년 후에는 통일될 가능성 높다. 그러나 통일 이후가 걱정이다.
- 북한이 5년 내 붕괴하는 것은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그렇게 길게 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문제로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 김정일 사망 가능성이 높다.
- 후계자 문제도 있다. 후계자가 권력승계를 통해 권좌에는 앉아도 3대 세습에 대한 문제는 계속 있다. 3대 세습 안될 가능성도 있다.
- 핵심 문제는 경제 문제이다. 자동차를 생각하면, 북한은 구소련으로부터

지원을 못 받은 18년 동안 수리를 못했고 부품도 교체하지 않고 그냥 사용해왔다. 18년은 자동차를 사용해왔다. 이제 차례차례로 무너져 갈 것이다.

Q 통일 가능성은?

- 5년 시나리오는 많다. 이번 기회 놓치면 영원히 통일을 놓치게 될이지 모른다. 이 가능성이 높다.
- 북한에 대한 중국의 개입문제는 심각하다. 이런 차원에서 경계해야 한다.

Q RENK의 활동에 대한 소개?

- 1993~97년 일본에서 주로 활동, 북한 인권 탄압실태를 고발했다.
- 93년 북한 대기근 예상되니 북한 지원해야 한다고 하니, 조총련에서 비난 시작했다.
- 북한 식량 많고 아프리카에 지원도 한다고 했다.
- 일본 정부, 한국 정부 나의 이야기 안 믿었다.
- 그러나 대기근이 발생했다. 북한 인권, 독재 문제에 대한 일본내 활동에 대해 97년부터 한계 느꼈다.
- 국제사회의 영향력 높지 않았다. 맨날 협박 받고 습격도 받으니 힘들었다. 활동할 수가 없었다.
- 중국으로 진출했다. 1997년 12월. 한국의 굿프렌드보다 빨랐다. 불교, 기독교인이 아니기에 탈북자가 만나면 북한에서 투쟁하라고 북한으로 도로 보냈다. 그들이 정보원 역할을 했다.
- 98년 기근 상황, 우리가 찍었다. 북한 내의 연계된 사람이 그걸 찍었다. 외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다.
- 북한 정보 사이트 정보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단체는 정확하다.

Q 중국내 RENK의 활동은?

- 중국에서 반년 전부터 민족반역죄로 지명수배 당하고 있다.
- 5년 전의 북경, 심양 탈북자들의 배후로 나를 지목하고 있다.
- 절반은 사실이다.
- 2년 전 북일 협상 때, 북(송일후)이 일본 외무성 사람에게 관서대학 이 영화 인도하면 일본인 납치문제 재조사하겠다고 했다하더라.

Q 북한 정치범 수용시설, 사회 치안은?

- 수용소 사람은 탈북자는 없다. 탈북자는 일반 수용소로 간다.
- 정치범 수용소는 사상범만 수용한다. 거의 못 나온다.
- 오사카에서 나오는 「임진강」이라는 잡지에 의하면, 버스를 군인들이 탈취, 소지품 빼앗아 간다고 한다.
- 제대군인들 상태가 매우 안 좋다. 장가갈 나이인데 결혼도 못하고 연금도 안 나오고 군복무기간은 연장되었고(7년에서 12년으로, 최근 1년이 줄었다)

Q 북한의 주민 감시, 탈북자 관리는?

- 탈북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북한의 관리실태가 완화된 것은 아니다. 힘이 닿는대로 한다. 정책이 변화된 것은 없다는 것이다.
- 국경수비대 병사 뇌물 받고 다닌다. 1인당 8월 이전에는 2만엔-3만엔, 8월(150일 전투) 이후에는 1/3로 줄었다.
- 탈북자도 북한에서 생활이 중간층 이상 되어야 가능하다.
- 방북 허가 8월부터 잘되고 있다. 북한에서 많이 받아주고 있다. 이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Q 북한 주변 관광지에서 팔리는 돈이 진짜인가? 99년 나진 선봉 방문시 생활비가 2,000원(봉급은 200-300원)이었다. 현재 3-4만원 필요하면 돈을 안찍어 내가 되는가?

- 북한 화폐량 조절은 하는 것 같다. 가짜돈은 안 찍는다. 관광지에 팔리는 북한 돈 모두 진짜이다. 만약 가짜 돈을 찍거나 화폐를 대량으로 공급하면 인플레이가 나와야 하는데 그런 징후는 없다.

Q 북한의 보건 실태는?

- 영양실태 안 좋아 콜레라 생겼다.
- 폐결핵이 다시 나온다. 해마다 유행하고 있다.

Q 북한의 후계구도는?

- 3남 김정은 대기. 발표 시기만 남았다.
- 북한의 봉건적 신분제 남았다.
- 북한의 계층 분류
- 핵심계층: 토마토(안팎이 붉다)
- 중간계층 : 사과, 껍데기만 붉다. 20~25% 여기에 속한다.

- 적대계층 : 배, 50%
- 김정은 어머니 일본인이다. 배계층이다. 토마토와 배의 접종, 하이브리드, 비밀로 되어 있다. 이는 신분제 모순 만드는 계기이다.
- 북한의 3남 승계에 대해 북한 주민은 관심 없다. 3남 후계 선전, 8월부터 없어졌다.
- 금년 3월, 장성택이 아들 3명을 모두 면담했다. 김정남은 후계자를 거부했다고 하고. 성혜림의 아들 3명, 딸 1명이 인질로 되어있다. 김정철은 거절했다. 모두 거절하여 3남 밖에 없다.
- 김정남 밖으로 돌리는게 훈련이라는 말도 있으나, 1년 전 나리타 공항에서 잡혀 후계자 그룹에서 탈락했다.
- 일본에서 후계자 문제 듣는데, 역정보도 흘러다. 유의해야 한다.

Q 최근 북·중관계는?

- 신압록강 도로, 남포항 개발 문제, 2,500억 지원설, 중국 정부가 북한에 준다고 한 것이다.
- 중국의 요구에 북한이 확실한 대답 않고 있어 애매한 상황이다.

Q 북한과 남한 정부간의 협력 가능성은?

- 북한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대화에 나온다. 특히 년 말까지 화학비료 받아 내년 농사 가능하기에 연말 안에 나올 것이다.
- 그러나 당분간이다.
- 북핵 포기 않는다.
- 이명박 정부도 알기에 검증하면서 조금씩 지원한다고 생각한다. MB정부 정책은 적절하다.

2. 이명박정부 대북정책 설명회

- 일 시: 2009. 10. 21, 15:00~18:00
- 장 소: 오사카 민단본부 대회의실
- 참 석 자: 이용권 일본 근기지역 민주평통협의회 회장 및 오사카 민단 간부 50명

3. 2차 한·일워크숍

- 일 시: 2009. 10. 22, 15:00~17:00
- 장 소: 오사카 힐튼호텔 소회의실
- 참 석 자: 일본 효고현 조총련 국제부장 김상행 외

◦ 총련 관계자 표현을 그대로 옮겼기에 일부 표현은 다소 어색한 부분도 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적절하지 않고 동문서답식으로 진행된 부분도 있지만, 총련 관계자의 의식과 대화법 등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 그대로 두었다.

Q 현재 북한과 일본의 관계는?

- 아소 총리 때는 노골적으로 북한을 견제, 지금은 원만한 대북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분위기이다.
- 납치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 납치 문제에 대해 조국(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인정하고 충분히 사죄했다.
- 일본은 우리 민족에 대한 식민지 지배에 대해 한번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 부분을 중시하고 있다. 어떤 문제가 크고 중요한가?
- 일본 공산당과 북한의 사이는 좋지 않다.

Q 방북 경험과 북한의 상황은?

- 북한은 년 1회 이상, 일본 사람을 동행하여 하고 있다.
- 일본에서 북한에 대해 매우 나쁘게 홍보하고 있어 일본인 중에는 북한을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 많다. 그러나 방북 후에는 생각이 달라진다.
- 달라진다는 것: 공화국의 인민 생활이 홍보내용과 같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계기가 된다.

Q 북한의 식량 사정은? 식량 180만톤이 부족하다는데, 인민의 생활은?

- 중앙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지방이 문제이다. 그러나 북한이 총련에 대해 식량을 요청한 적은 없다. 단지 우리가 알아서 돕고 있다.

Q 총련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은?

- 그 동안 수시로 총련 선박을 이용하여 북한에 물품을 지원해왔다.

- 그러나 최근 일본 정부가 이를 중지시켰다.
- 일본 정부에서 일본에서 하는 것을 제한한다. 외국에서 하는 것은 가능하다.
- 따라서 중국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작년 수해 때도 중국을 통해 지원했다.
- 아소 때 그렇게 했다. 하토야마는 아직 모르겠다.

Q 일본의 대북 무역 제한이 일본에 주는 피해는?

- 일본 중소기업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 군사적인 품목은 철저히 제한하고 있다.
- 일본 중고 자전거도 과거에는 지원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안 된다.

Q 북한과 일본은 수산물 교역이 많았는데, 제한조치로 인해 일본의 불편한 점은?

- 도토리현에서 동해 게를 많이 수입했다.
- 교류가 중단되어 일본 소비자 및 유통업자 피해 많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본 정부에서 이를 개방하려는 움직임은 없다.

Q 북한의 전력 사정은? 최근에 다소 개선되었다는 보도가 있는데 실정은?

- 수력 발전소가 많이 건설되었다. 평양 인근 대동강 원년 발전소가 20년 만에 준공되었다. 평양 및 인근 사정이 많이 좋아질 것이다.
- 원산청년발전소도 만들어졌다. 니가타에서 원산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는 매우 어두웠다.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
- 평양 시내에서 파이프, 전기 코드 생산한다. 기계는 체코제인데 1960년대 산이다. 그래도 일부 제품은 동남아에 수출하고 있다.

Q 북한과 인력 교류, 기술 개발은?

- 북한은 중국과 많이 협력해서 한다.
- 김책, 홍남 공대에서 기술 개발 많이 한다. 김책은 전자도서관도 있다.
- 북한 기술자, 자력으로 양성하되 외국에 유학을 많이 보낸다. 특히 중국에 많이 보낸다. 중국에서도 많이 온다. 과거에는 아프리카에서도 많이 왔다.

Q 최근 중국 원바자오 총리가 북한과 협력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북한

남포개발은 어떻게 되는가? 나진항 개발도 한다고 하고. 이는 중국이 동해출구를 갖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동북3성을 중국 공산당이 개발하고 있다. 이런 중국의 활동은 지하자원개발과 확보를 위한 인프라 투자인데, 북한에서 경계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북한에도 정치문제와 경제문제는 다르게 논의한다.

Q 북한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했다. 과거에는 국방위원회는 있었지만 이번에는 국방위원장은 추가되었다. 주석을 대신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대한 의견은?

-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다. 그러나 현실에 맞게 바꾸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Q 총련에서는 남한을 방문하는가?

- 2002년 처음 방문했다. 인도주의 차원에서 총련 고향 방문단을 만들었다. 과거에는 적성단체로 분류되어 남한 방북 못했다.
- 그 후 2007년부터 중단되었다.
- 차가 너무 많고 교통 체증도 매우 심했다. 그 때가 11월인데 매우 쌀쌀했다. 일본과는 날씨가 많이 달랐고 분위기도 달랐다.

Q 민단과의 관계는, 교류는?

- 복잡했다. 지금도 복잡하다.
- 한 때 민단 중앙회와 총련 중앙회가 악수도 했으나, 지금은 갈라섰다.
- 민단 내부에서 누가 문제 제기를 했다. 민단의 내부 규정상 총련과 그런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지켜야 하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 없는 것으로 되었다. 민단 중앙(천진?)은 매우 보수적이다.

Q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10.4 선언 정신을 이어 공화국에 인프라 지원을 해야 한다.

Q 북한은 국토발전계획 어떻게 수립하는가? 남한은 국토종합계획 방법을 제3세계에 수출하고 있다. 북한에도 도움을 주고 싶다. 이게 가능하겠는가? 계획부서가 어디인가?

- 북에도 국토관리부서 있고 잘하고 있다. 국토관리, 산불예방, 교통, 물

관리 잘하라는 지시가 많았다.

Q 임진강 방류문제 어떻게 생각하는가?

- 남북이 잘 합의하여 좋은 방안을 내면 된다. 서로 합의하여 발전방안을 찾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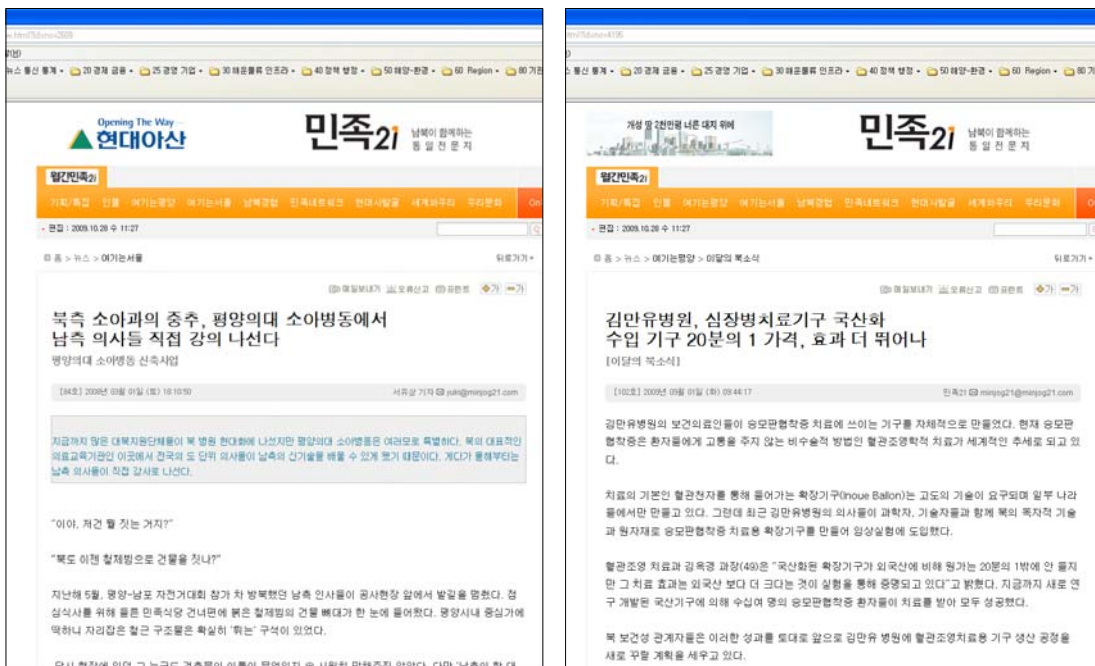
Q 북한도 국제관례에 따라 정책을 하여 남한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북한 정책으로 남한 국민이 마음 아픈 때 많다.

- 북한은 ‘개방’이라는 말을 싫어한다. 다른 좋은 말을 찾아보아야 한다. 중국식 사회주의 발전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Q 지난 10월에 평양 의전대학에 현대식 의료시설을 갖추었다고 들었는데, 북한의 의료 수준, 보건행정 실정은 어떠한가?

- 「민족21」에 잘 나와 있더라. 그걸 참조하라.

<「민족21」 관련기사>



Q 남측이 의약품을 지원하면 북한 주민들에게 골고루 지원 잘 되는가?

- 그런 의문이 있다는 것 나도 알고 있다. 방송에도 나온다. 북과 남이 점

검하는 시스템 만들면 되지 않는가?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되지 않는가?

- Q 남측에서 남포항으로 지원물자 보낸다. 그러나 양강도, 자강도는 사실상 전갈 방법이 없어 고루 배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륙 수송용 트럭도 같이 지원해야 한다.
- 그런 제안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 좋다고 생각한다.

- Q 북한의 사회안전 상태는 어떠한가? 사회가 변화되고 있는가? 일탈 현상은 없는가?
- 공화국은 미국과 상대하고 있다.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따라서 매우 사회안전요원이 많다.
 - 자본주의 시스템, 인식과는 다른 사회질서 필요하다.
 - 중국식 개혁 배워야겠지만, 이 과정에서도 북은 다른 특징이 있다.

- Q 북의 발전을 위해 조총련이 제안한 것이 있는가?
- 몇 해 전부터 북도 무역박람회도 한다. 서방 비즈니스 알고 있다. 무역 일꾼들이 그런 것 한다.

- Q 총련에 대한 압박, 특히 자금 압박은 없는가?
- 힘들다. 총련에서 대북지원도 못하는 실정이다.

- Q 그랜드바젠으로 핵 문제 풀어야 한다. 그 다음은 모든 게 해결된다. 이에 대한 생각은?
- 북의 경제발전 원칙은 주력갱생이다. 남의 계획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활용 못한다. 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 자력갱생 전시 용어 아니다. 경제발전에 활용되고 있다.

- Q 금강산 관광할 때 보았는데, 북한 농사,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않아 남한의 2/3 수준인 것 같다. 식량 자급자족 못하겠더라. 자력갱생보다 협력이 중요한 것 아닌가? 자력갱생도 조지만 무역도 해야 한다.
- 자력갱생이 100% 우리 것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다. 무역도 하고 협력도 하도록 한다.
 - 농업발전을 위해 원산농업대학에서 연구 많이 한다. 남한식 농업기술이

북한에 그대로 맞는게 아니다.

Q 직업능력교육 시설 수준은?

- 잘 모른다. 북은 사람을 중시한다. 인재양성에 많은 노력을 한다. 중장기 대책수립하고 밀고 나가고 있다.
- 수재 선발도 많이 한다. 금성학교 가 보았는가?
- 비싼 기계 있어도 사용방법 알고 잘 이용해야 한다. 사람 문제이다. 북은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다.

Q 후계자 문제는?

- 후계 문제 논의 안하고 우리에게 말 안한다. 해줄 말이 없다.

Q 김정운 인가? 김정은 인가?

- 전혀 모른다.

Q 핵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 조선과 미국의 문제이다. 남한은 가만히 있어야 한다.
- 북과 미국이 해결할 것이다. 북미회담 결과를 존중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Q 최근 조중간 신의주 특별행정구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과거 중국은 양빈을 구속했다. 신의주 개발계획이 이야기되는데 신의주특별행정구가 다시 가능한 것인가?

- 신의주 안가 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 분야 전문가도 아니다.그러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 비단섬 개발에는 관심 있다. 조·중 경제협력 중요하다. 많은 성과도 있었다.

Q 총련내 북한 교역하는 업체 있는가?

- 제약업체 있다.

Q 북한 방문 경로는?

- 일본-심양-평양
- 일본-북경-평양: 최근 이 루트가 많이 이용된다.

Q 일본의 민주당 정부의 대북정책은?

- 과거문제 후퇴했다. 선거전 여러 가지 정책 변했다. 내년 총선 7월인데 여러 가지 어려움 있다.
- 아사히신문 210만 명 죽었다는 기사 오보이다.
- 조선 사람의 한명으로 남북이 하나되길 언제나 기대한다. 그러나 남북의 현실문제 크다.
- 이명박 대통령, 북에 대한 오해 풀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